

## 공공이익 최우선의 위원회 운영 그라비아 인쇄기계발전에 앞장

신동호 / 성안기계공업(주) 사장

**“해외시장을** 자주 돌아보고 수출물량을 늘려나가다 보니 외국의 품질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외국 업체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큼을 느낍니다”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의 초대 기계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성안기계공업(주) 신

동호 사장은 우리업계도 국내 위주의 마케팅활동을 탈피해야 됨을 강조했다.

업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조직, 규모 등이 비대해 지고 발전돼야 함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기만 하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과 무리한 경영으로 도산하거나 휴폐업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는 포장기계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선 신동호 사장은 편협한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보다는 외국의 관리테크닉, 기법, 조직화등을 실정에 맞게 도입, 구조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작업체들은 한정된 국내 수요에 치열한 경쟁으로 업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술의 발전보다는 정체를 가져온 게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이 국내 제조메이커들의 공존번영을 오래전부터 자각, 개선에 나섰지만 워낙 취약한 국내 현실로 인해 개선보다는 깊은 침체



▲ 신동호 성안기계공업(주) 사장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후발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마저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했다.

최근 아시아지역 국가들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패턴의 변화가 일고 이로 인해 포장재의 수요증가, 기반산업 개발 등이 필연적 요인이 되고 있는데 포장재 시장의 성장속도가 빠름에도 개발능력이 부족해 우리나라

라 기업들이 참여할 호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외국의 재원을 이용하여 품질관리 역할을 해주고 시장과 노동력을 제공받는 상호 보완관계로 진출해야 된다는 것이 신 사장이 외국시장을 조사 분석한 결론이다. 특히 지역간 경제블록화가 강화되면서 아세안 지역이 타지역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개발의 여지가 많음에도 심한 이합집산과 출혈경쟁으로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신 사장은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과 성능 경쟁이 이루어지는 질서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연포장가공기계 제작업체들로 구성된 기계분과위원회를 이끌면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들의 해결에 나선 그는 우선 문제해결에 동참할 회원사를 늘리고 도출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내구성, AS, 생산성 등 소비자 니즈의 저가 고품질제품의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무조건적인 회원사 확보보다는 질적인 확보를 하겠다”는 그는 올해 10개 정도의 회원사를 늘릴 계획인데 한번에 많이 늘려 잡음이 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관리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모임 자체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보교환, 경쟁지양, 인력스카우트 방지 등 현실적인 사안등의 논의를 통해 문제발생시 조정하는 창구역할을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부품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범용성인 부품을 대상으로 표준화에 나서 어느 업체에서 제작된 제품이라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넓히는 작업도 협의의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구상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들 사안이 순조롭게 풀리면 공동 해외시장 개척, 정보수집, 공동 서비체계 구축, 해외전시 공동참여, 공동 홍보서비스 등 해외시장 진출 여건도 공동으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신 사장은 “협회의 구성이 늦은 감이 있지만 설립후 활발한 활동으로 업계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포장관련 다른 단체와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하게 문호를 개방, 명실공히 범포장협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협회 운영 및 발전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연포장을 중심으로 구성돼 점차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포장협회가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관심있는 내용, 공동문제 등 필요성이 인식되는 부분부터 심포지엄, 포럼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공공이익을 모색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해 참여의 보람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기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업계의 지탄만 받게 된다는 소신처럼 앞으로 기계분과위원회를 업계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단계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신 사장은 밝혔다.

여러가지 구상과 실행을 앞두고 있는 신 사장은 중책을 맡으면서 조금은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업계에서 인정하는 견실한 기업으로서, 업계 선두주자로서 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업체로서 업계에 끼친 영향과 공로를 볼 때 이 분야의 동량의 역할을 해온 성안기계는 공동발전을 위한 기술제공, 모범이 되는 회사운영에 현재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다. 이미 틀을 다져온 대로 기술개발과 시장참여, 수출 등 성안기계가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에 착실히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성안기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 잉크업체와 공동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관심이 많은 플렉소 인쇄기의 개발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는 업체가 업기에 기술을 보유하고 적용이 확산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미사여구가 붙어도 화려하지 않은 성안기계 신 사장은 “회사도 발전하고 업계도 발전하는 공동운명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업계 발전에 전력투구할 것”임을 밝히고 회원사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오선진 기자